



아트센터 인천 하이든의 '천지창조'로 2019 시즌 오픈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피아노 리사이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와 독창적 공연 콘텐츠로 연 30여회 기획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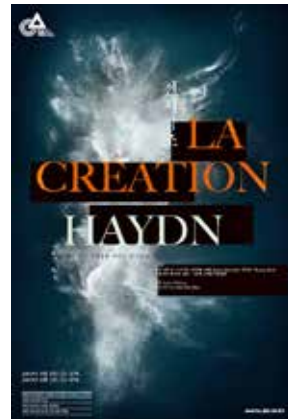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아트센터 인천'(AC)이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로 2019년 시즌 기획공연의 막을 올린다. 아트센터 인천은 콘서트홀의 뛰어난 사운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적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즌 공연을 준비했다.

시즌 개막 공연은 아트센터 인천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의미를 담아 '더 크리에이션'(The Creation)이라는 타이틀로 3월 1~2일 이틀간 진행한다. 스페인 비주얼 아트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는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홀과 대만 가오슝 아트센터 등 세계 유명 극장의 무대를 장식해 화제가 된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아트센터 인천의 초연이자 단독 공연이다.

1천7가 넘는 수조, 와이어 연출을 위한 크레인, 프로젝션 맵핑 등 기존 클래식 공연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는 고음악의 디바 소프라노 임선혜와 빈 국립극장과 라스칼라에서 혜성같이 데뷔한 베이스바리톤 토마스 타츨, 테너 로빈 트리첼러가 솔리스트로 참여한다. 또 고음악 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과 '그란데 오페라 합창단'이 신예 지휘자 김성진과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라 푸라 델스 바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출가로 손꼽히고 있는 카를로스 파드리사(Carlos Padrissa)가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비주얼 아트와 디지털 드라마, 현대 연극 및 오페라 공연으로 수많은 화제작을 선보인 바 있는 이들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을 클래식 음악과 연결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천지창조 공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맡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았으며, 길이 60m의 낮은 쇠빙선을 공연 공간으로 개조해 지중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공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3월 26일에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독주회가 예고돼 있다.

2003년 첫 내한 이후 16년 만에 내한 독주회를 갖는 그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쇼팽 스케르초를 연주한다. 지메르만은 열여덟살의 나이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 살아 있는 거장이자 완벽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지메르만의 쇼팽 연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곡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해석으로 이 시대 거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지메르만은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올리아 피셔(7월 7일), 벨체아 콰르텟(9월 21일), 레자르 플로리상-윌리엄 크리스티의 메시아(10월 17일), 잉글리쉬 콘서트-조수미(11월 6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조성진(11

월 9일), 안드라스 슈프-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11월 13일) 등 동시대 최고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이어진다.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클래식 콘텐츠도 마련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마티네 콘서트(3~11월, 총 5회), 최수열 지휘자-김성현 기자의 모차르트 모자이크(4~12월, 총 5회), 키즈 클래식(5월/8월),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12월), 오픈하우스 페스티벌(10월)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예술가 발굴과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9시즌 기획공연의 티켓은 1월 24일부터 인터파크 및 엔티켓을 통해 예매를 시작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공연의 1차 티켓 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IFEZ) 관계자는 "아트센터 인천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업무단지 내 다양한 문화수요층의 형성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 공연문화의 세계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유치해 문화마케팅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